



가치 창출 통한 인쇄업계 위상 제고

최고 인쇄적성 위한 신기술 개발 적극 투자

1975년 설립된 태신인쇄(주)는 태평양의 계열사로 지난 98년 (주)홍덕과 합병되기 전까지 태평양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생산량의 70%에 이르렀다.

태신인쇄(주)와 마찬가지로 전체 생산량의 70%가 태평양 제품이던 (주)홍덕과의 합병은 지난 해 3월 (주)홍덕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화재로 인해 (주)홍덕의 설비가 모두 소실되면서 추진된 합병절차는 98년 6월, 현재의 청원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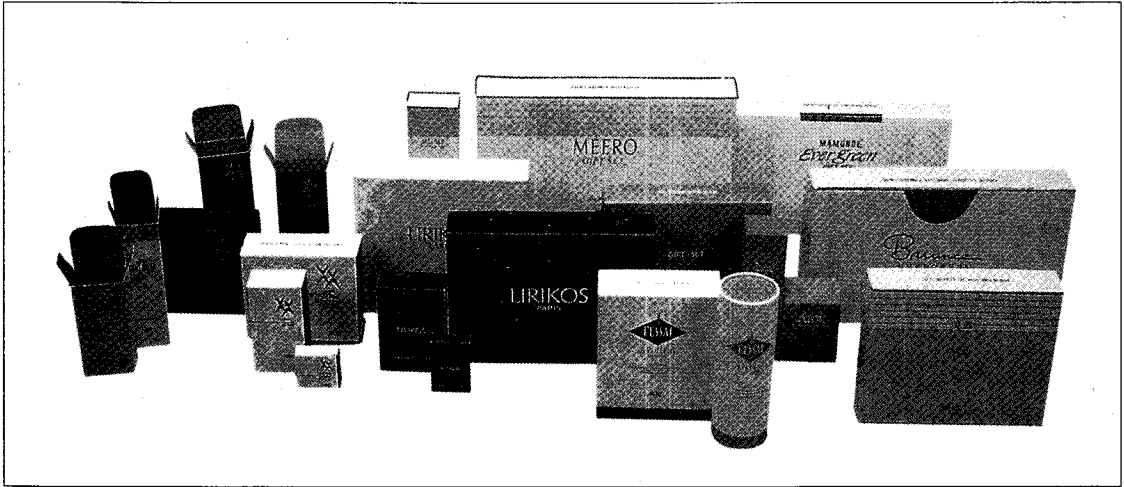
장으로 이전하고 그 해 12월 (주)홍덕이 태신인쇄(주)로 흡수합병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계기로 자동화 라인을 증설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했던 태신인쇄(주)는 합병과 동시에 다른 거래선들을 최소화하고 전체 생산량의 95% 이상을 태평양에 납품하고 있으며 이 외 5%의 거래선도 태평양과 관련된 업체들에 국한하고 있다.

태평양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병을 통해 그만큼의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 태신인쇄(주)의 청원공장 전경



▲ 태신인쇄(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화장품용 단상자

이러한 상황은 태신인쇄(주)의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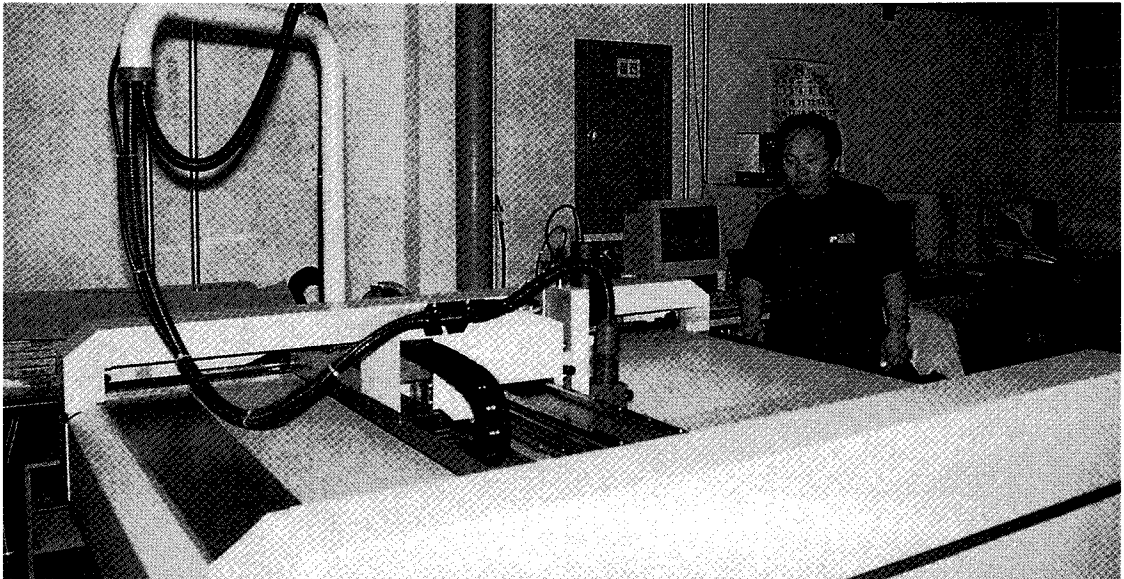
현재 화장품용 고급골판지상자, 식품포장용 골판지상자, 녹차 봉투류, 각종 세트, 월간지, 캘린더, 포스터, 쇼핑백, 설명서, 아웃박스, PP, PET 골판지상자 등을 생산하고 있는 태신인쇄(주)는 일반옵셋, UV, 실크인쇄 등 다양한 인쇄기법을 고루 갖추고 있어 최고의 인쇄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인쇄업계에 정립되어 있지 못해 주먹구구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색상데이터 및 공정별 품질을 표준화해 일관된 생산품질을 소비자에게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포장은 아직까지도 내용물을 보호하는 차원, 내지는 선전하는 정도의 차원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라면서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됐으며 소비자들의 포장에 대한 인식도에 만족스러워만 하고 있는 안일함을 지적하는 개발·QC파트의 조명진 과장은 태신인쇄(주)는 영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적어지면서 생긴 여유를 기술개발에 투자해 기능성을 가진 포장재를 개발해 자체 상품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신인쇄(주)에서 개발한 기능성을 가진 포장재의 예를 들어보면, 화장품의 경우 향이 매우 중요한데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그 향을 맡기 위해서는 제품을 개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서 착안, 지난 7월 태신인쇄(주)는 화장품을 포장한 골판지상자에 그 화장품의 향이 나게 해 내용물을 구매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태평양의 일부 제품에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태신인쇄(주)에서 개발해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은 바로 골판지상자에 바코드를 프린트해 불법유통을 막아낸 경우다. 골판지상자에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바코드를 장착하므로써 제품이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해 현재 태평양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의 경우 불법유통되는 경



▲ 태신인쇄(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Misomex multi plotter

우가 아예 없어졌다. 이는 태신인쇄(주)의 개발 제품으로 인해 유저 측인 태평양의 제품마케팅력을 증강시킨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화장품 골판지상자에 트레이를 만들어 PH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 예나 자체적으로 불투과지를 개발해 포스터에 적용하므로써 빛을 투과할 때 나타나는 고스트 현상을 없애므로써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포스터의 기능을 극대화한 예 등 태신인쇄(주)의 마케팅력을 가진 개발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까지 50여종이 넘는다.

이러한 꾸준한 연구·개발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통상산업자원부의 GD마크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제품을 생산할 때 국가와 제지업계, 유저들의 기준규격이 각기 달라 그 오차를 때문에 가장 큰 어

려움을 겪는다는 조 과장은 이처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곳은 바로 가공업체가 아니겠느냐며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하나의 기준으로 규격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면상으로 합병을 한지 이제 8개월 남짓이지만, 남보다 한발 앞선 도전정신과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개발의식, 그리고 고객만족주의를 중심으로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신념으로 전 직원이 하나되어 있습니다”라는 관리과 지용순 과장의 말처럼 합병이라는 과정을 통해 더욱 견고한 모습을 태어난 태신인쇄(주)가 단순 인쇄업체로 머무르기보다는 새로운 개발품을 끊임없이 선보이므로써 인쇄업계는 물론 전 포장업계 발전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믿음을 전 임직원의 한 호흡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

윤지은 기자